

티에스아이, 보통주 1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 발행주식수 총 1,853만4,230주로 증가... 수급 개선 및 주주·기업가치 제고 목적

2차전지 믹싱시스템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티에스아이(대표이사 표인식)가 보통주 1주당 1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총 926만7,115주가 새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기존 926만7,115주에서 무상증자 완료 후 1,853만4,230주로 증가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1년 3월 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30일이다.

이번 무상증자는 유동성을 높여 수급을 개선하고,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의 투자 접근성을 향상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다.

티에스아이 표인식 대표이사는 "유통주식을 늘려 거래 활성화 및 투자기회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당사를 믿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한다"며 "유통물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반영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주가치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에스아이는 "올해 기존 글로벌 셀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객 다변화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작년에 미진했던 수주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티에스아이 070-4827-3071